

후속대책 없는 ‘군산 위기지역 지정’

한국GM 오늘 법정관리 데드라인…노사 합의 여부 주목
희망퇴직자·시민들 불안 고조…중소기업, 실질 대책 촉구

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위기에 놓인 군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산공장 희망퇴직자와 시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지엠 협력업체 등 군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난 20일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지엠 협력사인 A사 대표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일주일엔 하루 이틀만 공장을 억지로 가동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가

동들이 줄기 시작해 GM 관련 매출이 200억원에서 최근 30억원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B사 대표는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다”며 “근로자 휴업급여나 여러 지원제도도 기업들이 잠깐 연명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 자신은 IMF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낀다”며 “하루속히 예산을 증액해주든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용도 예산을 이쪽에 돌려줘서 어려운 업체들 숨통 좀 트여달라”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은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역 업체들의 업종 전환 지원, 공장 가동 유지를 위한 다른 기업 납품 시스템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섬유제조업체인 C사 대표는 “지난해 BYC의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전북지역 섬유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유산업 업체들이 일정 부분 국내 생산을 하도록 쿼터제를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산업용 프린팅 필름 제조업체인 D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정부가 은행 연산을 과감히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관리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엠 군산공장 희망퇴직자와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지엠(GM)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이 20일에서 23일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사흘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엠이 지난 2월13일 가동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군산공장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70%(105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서명하고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섰다.

희망퇴직 근로자 박모씨는 “일부 퇴직자는 다른 직장을 찾았고, 일부는 회사가 약속한 위로금을 기반으로 소규모 점포를 계약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만약 임단협이 불발에 그쳐 최종 부도가 나면, 이들 근로자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 김모씨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폐쇄 결정은 실업률 증가와 지역상권 몰락, 부동산가격 하락,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불행이 없기를 희망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시티투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정읍시가 운영하는 ‘쑤나무 시티투어’에 참가한 초등학교생들이 김명관 고객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읍시 제공>

쑤나무·사계절 테마형 등 운영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시티투어가 인기가 있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동에 따른 불편 없이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정읍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티투어가 운영 중이다. 현재 쑤나무 시티투어와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가 관심을 끌고 있고, 다음달부터는 고창·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쑤나무 시티투어’는 초·중학생이 대상

이다. 정읍 전통문화와 역사체험 등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6개월 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는 정읍 관광을 원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정읍으로 전입(1세대 당 2인 이상)한 경우 연말까지 무료다. 이달부터 12월 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단체 20인 이

상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투어도 가능하다. 4월 벚꽃신록 투어코스, 10월 구절초 투어코스 등 계절형 코스로 운영한다.

정읍·고창·부안 3개 서남권 시군이 운영하는 ‘서남권 시티투어’는 5월부터 진행한다. 문외는 ‘로망스투어’(02-318-1664)를 이용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읍·고창·부안의 주요 관광 명소를 한 눈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다”며 “올해는 3시·군이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채널본부장

고창군-온죽농업회사법인

북분자농공단지 협약 체결

1만78㎡부지에 80억원 투자

고창군과 ㈜온죽농업회사법인이 북분자농공단지 투자를 위한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온죽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면 용산리 북분자농공단지 1만78㎡부지에 8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공장 착공은 오는 5월 진행된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핫드그와 스파게티면, 피자도우 등이 생산되며 4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은 공동 연구개발과 마케팅으로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식품 공동 마케팅 등 매출신장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분자농공단지는 빵류 제조업체인 ㈜라온푸드시스템, 만두 등을 생산하는 ㈜유지식품에 이어 ㈜온죽 등 총 8개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지역 내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동지

광주일보

창간 100주년

전남도, 가축분뇨 배출재활용시설 특별점검

오늘부터 2주간 실시

전남도는 가축분뇨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23일부터 2주간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22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가축분뇨는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및 인의 농도가 높다.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을 무분별하게 아적하거나 살포하면 강하천으로 질소, 인 등이 유입돼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녹조란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다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나 규조류가 증식해 물

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액을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아적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을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부적정 보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인 만큼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기적의 나무 ‘모링가’ 액상 차 미국 수출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기적의 나무’ 모링가에서 만든 액상 차가 미국 수출길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남도농산과 공동연구해 개발한 모링가 액상 차를 최근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링가나무는 열대와 아열대기후에서 5~12m까지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적의 나무로 알려졌다. 잎과 줄기에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에서 아프리카 난민 구호식품으로 권장하

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6년부터 지역에서 적을 재배시업을 추진해 지난해 4월 장흥과 강진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액상 차도 개발했다.

모링가 특유의 매운맛을 제거하고 구수한 맛을 살리기 위해 자체 개발한 볶음 기술로 500㎖ 상품을 만들어 국내 휴게소와 편의점 등에 시판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으로 3000병을 수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최근 2만병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창의학교 전남’서 문화창작 체험하세요

국악·연극·대중음악 영역

아동·청소년 100명 참여

전남복지재단은 아동·청소년 문화창작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창의학교 전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의학교는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전남도 인재육성 정책과 CJ그룹의 교육복지 철학이 만나 성사됐다.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대중음악 창작기법 등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기대를 모은다.

‘창의학교 전남’ 2기는 국악, 연극, 대중음악 3개 영역 100명의 학생들이 참

여한다.

전남복지재단은 앞서 3월30일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이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간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CJ나눔재단 관계자와 전남복지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체적 멘토링과 전문지식을 전수받게 된다.

특히 콘서트나 연극 공연 관람 등 영역별 맞춤형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 창작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신안군 압해도 북룡리 1810㎡ 저수지담 조용한생활작합 47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작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리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66㎡ 집 79㎡ 티마실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소방도로점 2층 주택 전채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만원 1억4500

투자 · 매도 · 교환

-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 압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팬션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원야 10512㎡ 1억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종을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앞 664㎡ 2층주택 사찰적합 분할매도 가능 4억7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에적합 공사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작합 1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작합 7억6천
- 양동시장 대로변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5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종을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2층주택 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저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펜션전을 맞춘다자신 1공 후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복합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광양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